

커뮤니티 댄스의 적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김 명 회**

I. 서론	V. 결론
II. 커뮤니티 댄스의 시대적 요구	참고 문헌
III.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과 적용 사례	Abstract
IV. 커뮤니티 댄스의 활성화 방안	

I. 서론

대중예술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은 것처럼 ‘커뮤니티 댄스’라는 용어는 국내 무용계에서도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무용예술 환경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로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문광부 주최 ‘무용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광주교대 정희자는 관객개발 및 시장 확장으로서의 커뮤니티 댄스를 발표하며 계층별 무용 감상 및 체험프로그램의 확장과 전국 문화회관에 커뮤니티댄스 센터 개설을 주장한다. 그 이후 커뮤니티 댄스에 관한 개념이 학계, 저널에서 가끔씩 논의되어 왔지만 우리나라 무용계에서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마도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무용이론과 주최, ‘새로운 미래로 비상하는 춤의 상상력 커뮤니티 댄스’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일 것이다.

2011년, CID 유네스코 한국본부와 한국 춤 비평가 협회 주최, 제 4회 공연저널리즘 서울포럼이 ‘새로운 몸의 화두, 커뮤니티댄스’의 주제로 열렸고 전 세계의 공연예술전문 저널리스트들과 한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그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2012년 한국무용교육원 김화숙 외 3인의 연구자가 ‘커뮤니티 댄스, DT Curriculum’을 출판하여 본격적인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댄스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무용가나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댄스가 갖는 특성이 매우 포괄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댄스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용가들이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 나 실천 방법론, 제도적 접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한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서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엄에서의 발표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원대학교 교수, swballet@seowon.ac.kr

커뮤니티 댄스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혜리(2014, 2015)는 커뮤니티 댄스는 동시대 의식 공동체 무용이며 체험과정인 창의적 사고는 전인교육의 목표로 보았고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무용은 직접 경험의 모델로 규정하였다. 황정옥(2013)은 거주지 문화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의 기능을 살펴 보았고 한지연(2015)은 커뮤니티 댄스의 가치공유 및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커뮤니티 댄스에서의 동시대 의식 공동체와 창의성, 참여무용으로서의 참여체계의 상호 연계성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의 커뮤니티 댄스가 지닌 기능과 교육적 접근으로서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커뮤니티 댄스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민주주의 개념에서 출발한 커뮤니티 댄스가 대중예술시대를 사는 무용가나 무용예술 환경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발전해 가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가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커뮤니티 댄스가 발현되고 전개될 수 밖에 없었던 변화의 요인을 제1장 커뮤니티 댄스의 시대적 요구에서 알아보았으며 그 논의에서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를 제2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국내 커뮤니티 댄스의 현주소를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3장에 제시하여 일반인이나 무용가들에게 커뮤니티 댄스를 이해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 정책으로의 커뮤니티 댄스 정착과 무용 전문 인력 양성의 방향을 제시하여 커뮤니티 댄스 실행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II. 커뮤니티 댄스의 시대적 요구

국내에서 커뮤니티 댄스가 발현되고 전개될 수 밖에 없었던 문화예술 환경 변화의 요인을 세 가지 측면: 사회적 요구, 반성적 의미, 무용예술에 대한 무용가들의 새로운 접근으로 살펴봄으로써 무용교육과 무용예술이 동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요구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에 속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Health Data, 2011』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평균자살률은 28.4%로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행복지수 26위,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자살률1위로 불명예를 안았다. 자살률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4위에 해당되고 10대에서 30대의 연령층이 이에 속하며 그 중에서 10대의 자살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청소년 자살문제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이 맞물려 있고 노인들의 자살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제력 약화, 가족 붕괴로 인한 정서적 소외감, 만성질환과 이러한 원인에서 오는 정신 병리학적 요인 등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요구되었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랴부랴 정부에서 학교폭력 경제경보를 발령, 학교폭력예방책을 발표하고 예방, 대책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삶의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확립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 콜롬비아 ‘몸의 학교’는 인성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이 옹호되고 있는¹⁾ 현 시대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댄스 교육의 실천적 모델로서 시작한 한 부부가 창설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공동운영하고 있다. 또한 젊은 음악가들의 일자리 창출, 뒷골목의 비행아동과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통해 범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어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대안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꿈의 음악학교 ‘엘 시스테마’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창출에 이르는 커뮤니티 예술운동의 개념과 실천을 엿볼 수 있다. 위의 두 학교의 예처럼 답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나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러한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인간성의 고갈을 안타까워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도모하려는 방법을 예술교육에서 찾는 가운데, 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정보의 홍수를 통제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과 윤리의식, 신체적 움직임, 감성, 다양성을 구현하는 ‘삶의 방식’을 반영한 문화적 리터러시²⁾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술은 삶의 반영이자 그 예술가가 속한 문화가 작품의 모태 혹은 소재가 되기 마련인 것이다.³⁾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교육이 곧 무용이라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용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몸을 움직이는 가장 인간적인 사회적 현상이며 그 몸은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면서 세계의 경험을 담고 있다. 또한, 외부 세계,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표현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매개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티 댄스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용이 갖는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공동체적 힘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2. 반성적 의미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성격이 농후했던 노동자 계급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 서울무용계에 출품되었다. 그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봐야 할지 아닐 지에 대한 논란이 무용계의 이슈였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시민사회의 전통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으며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때였다.⁴⁾

그만큼 무용계에서는 고급예술무용만이 예술무용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 예술의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well-being)과 같은 가치관이 사회전반에 대두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예술창작에 대한 대중 참여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아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무용계에서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커뮤니티 아트는 공동체 예술 혹은 공동체의 이해(community of interests)에서 출발한 예술로 해석

1) 탁지현(2014), 콜롬비아 <몸의 학교> 교육 구조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p.55.

2) 김명희(2014), 한국무용교육의 시대적 동향과 과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p.29.

3) 김말복(2011), 컨템포러리 댄스의 몸, 『무용예술학연구』 34(가을), p.1.

4) 전병태(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34.

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중이 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⁵⁾ 하는 문화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이고 보다 많은 다수를 위한 예술,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예술, 공동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예술을 지향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아트의 개념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특수한 사람들만의 예술영역이라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문화민주주의⁶⁾에 기초를 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게 하였으며, 일반인들이 무용교육을 통해 문화로서의 무용의 가치를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무용창작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고 자신과 타인, 사회와의 문화적 소통을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무용가들은 더더욱 예술지상주의를 추구하였고 무용교육자들은 공교육에서 무용이 체육의 한 부분으로 교육되는 현실에 맞서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방법론 연구에 여념이 없었다.

1999년 평생교육법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고 문화 복지 차원의 일반인들의 예술참여가 점점 증가되었다. 이와 맞물려 다양한 현장에서 무용교육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책현장의 변화는 이른바 커뮤니티 댄스의 양상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⁷⁾

최근에는 무용가와 무용교육자들 스스로 무용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적 리터러시의 매체로 인지하고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방법으로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이른다.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무용교육의 새로운 교육적 접근 방식이 요즘 들어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까닭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였던 것이다.

3. 무용예술에 대한 무용가들의 새로운 접근

한동안 대학 무용학과의 폐과, 무용 전문 인력의 감소, 관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무용예술의 위기를 공감하고 위기 극복의 다각적인 노력이 끊이지 않았었다. 좀 더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무용의 대중화 프로그램 즉, 체험 프로그램, 관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사회무용의 포용, 즉흥 춤의 확산, 프로 시니엄 무대의 탈출 등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서울 문래동 ‘물래 아트 페스티벌’의 릴레이 춤판과 같은 커뮤니티 댄스를 종종 목격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삶 속에 예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대중예술시대에 서로 공감대를 이끌고 그들 스스로 문화예술의 창조자로, 수준 높은 향유자로 참여하려는 의욕과 속도를 무용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고급무용예술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인 반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공동체 기반의 춤이 21세기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⁸⁾라는 앤 테일리의 말처럼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듯하다. 그

5)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에 의하면, 공동체의 이해는 청소년 교육문제, 여성차별 문제, 인종차별문제, 노동자/실직자/은퇴자의 이해, 지역발전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고 했다.

6)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문화민주주의의 이념은 오페라, 발레, 교향악, 연극 등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이념과 대비되는 개념. 고급예술의 대중화 정책이 다수의 대중이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창조해 나갈 권리를 제한 혹은 방해한다고 보고, 대중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창조해 나갈 권리를 주장. 이를 위해 대중에게 예술 참여 기회와 균등성, 문화의 생산수단에서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

7) 용호성(2012), 문화민주주의 기반 커뮤니티 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3.

8) Donald Hutela(2011), 누구나 다 함께: 미국커뮤니티 댄스, 『한국춤비평가협회 제4회 공언저널리츠서울포럼 논문집』, p.10.

러나 당대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모든 장르의 예술과 함께 무용 또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해야 되고 무용교육의 힘은 당연히 무용예술의 힘에서 나온다.⁹⁾ 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무용예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무용가들이 무용을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의 시대, 여가의 시대로 접어든 21세기의 대중문화 콘텐츠로 커뮤니티 댄스의 수용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반인들을 주체로 한다. 무용예술이 그들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무용교육으로 그들을 춤의 창작자로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무용가와 참여자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은 무용가와 참여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용의 공공성(publicness)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무용예술이 무용가의 전유물처럼 창작되어 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용작품이 관객과의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용은 예술로서 가치가 없다. 무용예술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춤으로 다시 회귀해야 할 대중예술시대의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III.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과 적용 사례

1.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지역’, ‘지역사회’, ‘공동체’ 등으로 번역되어 문화정책을 수식하거나 구체화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유사한 맥락에서 ‘마을’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커뮤니티 댄스를 ‘공동체의 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춤’, ‘지역사회 춤’, ‘마을 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체 춤은 본래 고대의 제의나 축제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역사적으로 춤이 없는 사회가 없었듯이 지역과 공동체의 기반위에 춤은 언제나 존재하고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 개념 또한 춤의 역사적 변천에 의해 매우 유동적이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져왔다.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매우 달라지지만, 오늘날 외래어인 커뮤니티 댄스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현대적인 대중무용 예술양식의 용어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댄스는 1960~70년대의 커뮤니티 예술운동(Community Arts Movement), 브린슨이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발레(Ballet for All), 그리고 라반센터를 그 모태로 한다.¹¹⁾ 그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국제적인 흐름을 잡는다.

국내에서는 커뮤니티 아트의 개념에서 출발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무용예술 강사 제도가 커뮤니티 댄스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의 교육활동은 커뮤니티 댄스의 발전과 영역 확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9) 이상일(2009), 무용교육론 서설,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p.10.

10) 용호성(2012), p.3.

11) 앞의 글, p.5.

제 II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커뮤니티 댄스의 주체는 개인 예술가가 아니라 장소, 민족, 계급, 인종, 성적취향, 직업, 환경, 정치적 성향 등 공동의 정체성을 보유한 '공동체'에 있다.¹²⁾

나.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커뮤니티 댄스의 유형과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의 정체성과 지역을 기반으로 또는 지역을 뛰어 넘는 사회, 문화적 예술 활동이다.

라.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 개개인이 주고받는 소통의 사회적 요소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¹³⁾ 공동체와 무용가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의 예술 활동이다.

마. 커뮤니티 댄스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편화된 가치를 보유하면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용의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바. 커뮤니티 댄스는 무용 전문가의 역할을 필요로 하며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무용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무용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¹⁴⁾

2. 우리나라 커뮤니티 댄스의 적용 사례

현재 커뮤니티 댄스는 국내 전역에서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들이 적용되는 사례를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동시대 무용으로서의 커뮤니티 댄스 현상과 실천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소개되는 사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사업으로 기획되고 시범사업,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상주예술단체의 육성 사업 중 성공 사례, 서울 문화재단의 기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저널을 통해 평가받은 커뮤니티 댄스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기술되었다.

가. 지역문화의 보존과 글로칼리즘¹⁵⁾의 커뮤니티 댄스

사단법인 전북 마을 춤 진흥회는 전북의 민속, 설화, 놀이, 풍속, 춤을 소재로 민속의 재창조작업을 1990년도부터 실행하는 단체로 지역통합, 공동체 의식 강화, 생활 활성화, 사회 순화, 저항성의 기능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갖춘 마을 춤을 재창조하여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시키고 있다. 마을 춤은 원형을 근거로 하여 그 전통의 정신을 살리되 누구나 출수 있는 재미있고 쉬운 춤, 춤춰서 즐겁고 구경해도 즐거운 놀이 춤, 소리 춤으로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건전한 마을 정서 창출 및 결속, 대화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001년, 2003년에는 완주군과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마을 춤의 모형, 무대화의 대 연구를 완성하여 익산 '지계 놀이 춤', 남원 '닭과 지네 춤', 정읍 '단속곳 춤', 고창 '모양성 님성 놀이 춤', 완주 '줄다리기 춤' 등이 만들어졌다. 2005년 문광부가 기획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12) Jan Cohen-Cruz(2005), 『지역 예술운동-미국의 공동체 중심 퍼포먼스』, 권영진(역)(경기도: 미메시스, 2008), p.17.

13) 신상미(2013),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인류의 춤 문화 코드 읽기』(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248.

14) 김화숙, 전혜리, 한혜리, 오레지나(2012), 『커뮤니티 댄스』(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p.7.

15) 글로칼리즘: 석학 이어령이 2001년 김경주의 마을 춤으로 보는 전북5경 프로그램의 격려사에서 사용한 용어로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을 합친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뜻의 용어로는 한국무용교육원이 출간한 '커뮤니티 댄스, DT Curriculum' p.23에서 재인용한 'glocalization'으로 이 용어는 Robertson(2005)의 용어로 글로벌 문화를 지역적으로 변형된 양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정으로 4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주시와 우석대학교 공동 주최, 전주비빔밥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공동체 춤 활동을 전개했다.

나. 중년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아츠 커뮤니케이션(Arts Comunication) 21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성북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로 무용예술이 특정 소수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삶 속에서 향유되는 예술, 지역사회와의 소통, 연계 등의 의미를 지닌, 만인이 즐기는 예술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츠 커뮤니케이션 21은 교육콘텐츠와 공연콘텐츠를 만들어 커뮤니티 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활동은 ‘춤추는 줌마렐라’, 동화발레 ‘백조의 호수’ 등이 있다.¹⁶⁾

‘춤추는 줌마렐라’는 성북구 지역에 살고 있는 중년여성을 커뮤니티로 형성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들이 만든 지역 춤이다. 성북구의 중년여성 공동체는 성북구청의 협조 하에 지역 춤 전파하기와 지역축제 참가 등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또 다른 커뮤니티의 생성과 같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11년 춘천 아트 페스티벌(예술 감독 장승현)의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당신은 봄내에 살고 있군요’를 위해 춘천에 거주하는 30~50대의 중년 여성들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장은정을 비롯한 4명의 안무가와 2개월간 워크숍을 진행하여 20분 정도 길이의 작품을 만들어 춘천 아트 페스티벌의 무대에 올렸다. 중년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춤을 매개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려는 의도가 돋보였던 공연으로 참가한 사람은 물론 관객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과 경험을 체득한 커뮤니티 댄스였다.

다.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아츠 커뮤니케이션 21의 ‘월월축제-청춘 컴백(come back)’은 4년에 걸친 북정 성곽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구성한 의미 있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의 성과이다. 성곽마을의 노인들이 태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신명과 흥을 일깨워 그들만의 움직임은 창조 하고 그 움직임에 마을 이야기를 입혀 지역민들이 만든 지역 축제의 커뮤니티 댄스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수기 공모’에 프로그램 내용이 소개되었다.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2011년 2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를 공연했다. 안무가는 20세기 역사를 담고 있는 노인들의 몸짓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춤을 생생하게 영상에 담고, 그들의 춤을 무용수들이 따라하고, 드디어는 춤의 주체인 노인들이 무대에서 직접 그 춤을 추고, 끝 무렵에는 모든 연령층의 관객들이 함께 어울려, 세대를 넘어선 소통과 교감으로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의 공동체 정서를 창출해낸 커뮤니티 댄스였다.¹⁷⁾

16) 서희영(2011), 국민대학교 무용전공 & Arts Communication 21, 『국민대학교 제7회 예술제 Dance & Community’ 포럼 논문집』, p.17.

17) 조정진(2011, 2. 1.), 뽀빠머리 무용가 안은미 ‘할머니 춤’ 무대 올린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1/02/01/20110201002402.html>>.

라. 시민중심 춤, 거리 춤 릴레이의 커뮤니티 댄스

각 중 무용행사나 페스티벌에서도 커뮤니티 댄스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서울 문래동의 ‘물래 아트 페스티벌’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행사들을 지향하는 곳으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곳이다. 온 앤 오프 무용단이 주축이 된 토요일춤과 즉흥춤을 한 달간 이어지는 거리 춤 릴레이로 발전시키면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생활 속의 춤’을 4년째 실천하고 있다.¹⁸⁾

서울문화재단에서 2013년부터 추진한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춤추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춤을 통한 활력과 치유,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성 회복, 삶을 위한 춤의 가치 확산, 시민문화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 참여 형 프로젝트를 실천하였으며 서울에 실행공동체인 ‘춤바람 커뮤니티’를 형성한 성공적 사례이다.¹⁹⁾

마.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2011년 호암아트홀에서는 청소년 감성 키움 프로젝트 ‘상상학교’-〈꿈! 틀! Dream a Motion〉²⁰⁾ 커뮤니티 댄스공연이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 청소년활동 진흥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 공연에는 서울의 10개 청소년수련관, 130여명의 청소년들과 20여명의 안무가, 예술 강사들이 참여하여 3개월간 함께 실행한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의 결과물이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몸의 발견, 소통으로의 춤, 창조와 표현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발견한 움직임으로, 각종 오브제를 활용한 신체놀이와 게임, 춤동작으로 연결하는 전문적 방법을 습득하고 경험한다.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과 몸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동체 춤이었다. 이 공연에서 우리는 평범한 청소년들이 전문 예술극장에서 수준 높은 공동체 춤을 추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문화예술교육의 힘과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커뮤니티 댄스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바. 엄마와 딸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2011년 4월 인천 아트플랫폼에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로 핀란드의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한나 브로테루스를 초청해 〈엄마와 딸〉을 위한 특별한 워크숍을 9명의 국내 예술 강사와 함께 10일간 진행하고 3일간 결과 발표회를 가졌으며 유네스코 지정 제 29회 세계 춤의 날 기념행사(서울 시청 앞 광장) ‘누구나 춤출 권리가 있다’에서 공연되었다. 정해진 무용동작을 배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일상적인 몸짓과 눈짓으로 나눈 아주 특별한 대화로 엄마와 딸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은 보는 관객들에게도 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²¹⁾

18) 송준호(2010, 11, 30.), 온앤오프무용단 활동 문래동 ‘커뮤니티 댄스’ 벨트로 떠올라, 『주간한국』, <<http://www.kssline.pe.kr/zero/view.php?id=kssline01&no=4876>, 2012, 5, 22.>.

19) 한지연(2015), pp.83-85.

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10, 9.), 꿈! 틀! Dream a Motion, 『호암아트홀』.

21) 박향아(2011, 5, 3.),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엄마와 딸’ 그 안의 사람들을 만나다, 『아르떼진 인터뷰』,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artezine&logNo=90112738259>, 2012.05.30.>.

사. 레지던스 공간 지원 사업에서의 커뮤니티 댄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흥은예술창작센터(2011년 5월 개관, 일명 서울 무용센터)는 무용 및 시각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 예술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개발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춤, 바람 Dance, Wishes’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주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 낸 프로그램으로 참여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고민으로 시작하여 시민들의 마음과 바람을 담은 춤을 선물하는 창작과정으로 기획되었다.²²⁾

IV. 커뮤니티 댄스의 활성화 방안

국내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왔다.²³⁾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무용예술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 댄스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용교육이며 무용예술로서 그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김이경의 “무용 전문 인력 재교육에 관한 고찰”과 차민경의 “민간예술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참여활성화를 위한 내 외부 여건 분석”의 논문에서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에 따른 무용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직업창출로서의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부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 용호성은 “문화민주주의 기반 커뮤니티 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서 커뮤니티 댄스와 관련된 국가 정책이 국가 주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그 속성상 국가 문화정책과 별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커뮤니티 댄스가 앞으로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가 양성과 실천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플드바드는 ‘공동체 예술은 문화적 의미, 표현, 창의력이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신념에 근거하며, <공동체 예술가의 임무>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그 창의력에 예술적 형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밝힌바 있다.²⁴⁾ 이 글에서 우리는 커뮤니티 댄스의 구성요소인 주체인 공동체, 전문가의 역할, 실천적 방법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는 교육의 구성요소와도 흡사하다. 공동체와 전문가의 능동적인 상호관계는 교육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의 능력과 역할을 규정짓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커뮤니티 댄스의 실천적 방법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되려면 그에 알맞은 교육과정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

22)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html/artspace/hongeun_biz.asp>.

23) 김이경(2013),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에 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43(4), p.41.

24) Jan Cohen-Cruz(2005), p.17.

다. 그러한 뜻에서 한국무용교육원의 ‘커뮤니티 댄스, DT 커리큘럼’은 매우 의미 있는 고무적인 작업으로 적절한 시기에 출간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인 대학교에서의 노력이다. 대학교의 무용학과에 커뮤니티 댄스 과목이나 커리큘럼을 둔 대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부산 소재 K대학교와 서울 소재 K대학교의 예를 들어보자면, 부산 소재 K대학교는 학부 및 교육대학원 교과과정에 커뮤니티 댄스강좌를 개설하고 실습과정을 두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였고 서울 소재 K대학교는 학부과정 커리큘럼에 체계적인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콘텐츠개발연구소를 활동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일부 공공기관 중심의 콘텐츠 개발보다는 민간과 지역의 더 다양한 영역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²⁵⁾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과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커뮤니티 댄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더 확산되어야 한다.

2. 정책과 제도가 지역으로 정착되고 지역무용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영국의 커뮤니티 댄스는 1970년 영국예술원(The Art Council)의 무용발전을 위한 관객 확립정책에서 시작되어 댄스 애니메이터(Dance Animateur)²⁶⁾들이 커뮤니티 댄스 네트워크의 중심점 조직으로 커뮤니티 댄스재단(FOUNDATION for Community Dance)을 만들면서 활성화되었고, 미국의 커뮤니티 댄스는 국립예술기금(NEA)의 ‘예술 확장 프로그램’을 비롯한 록펠러 재단 같은 대기업들의 기금 프로젝트로 커뮤니티 댄스가 활성화되었다.²⁷⁾

위와 같은 커뮤니티 댄스 재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으로 전국의 16개 지역 문화재단의 각종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상주예술단체 지원 사업, 레지던스 공간 지원 사업, 아트 플랫폼 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각종 문화예술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각 지역 문화재단의 사업 중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상상학교 공연화 사업’, ‘아동복지시설 주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은 커뮤니티 댄스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다. 이외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작은 규모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무용가와 무용단체들은 타 예술분야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전문성의 결여, 활동 의지 부족, 정보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실천적 의지와 지식, 열정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정책이고 곧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예술정책들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제도 방안을 마련

25) 차민경(2013), 민간예술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여건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43(4), p.156.

26) 김화숙 외 3인(2012), p.13.

27) 김재현(2011), 커뮤니티 댄스의 국제적 동향, 『2011 한국춤비평가협회 신춘 포럼 논문집』, p.6.

하여 실행한다면 지역 무용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지역의 커뮤니티 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 복지로서의 커뮤니티 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화 복지는 우리 사회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반면 정신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성숙하였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문화적 감수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문화적 감수성은 개인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현재를 진단하여 성찰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문화적 삶의 질’이 문화 복지라는 개념으로 읽혀진다면, 여기서 복지는 ‘자선’이 아닌, ‘정의’의 개념이며, 나아가 ‘문화권’ 혹은 ‘문화에 대한 권리’와 일맥상통하기 마련이다.²⁸⁾

이러한 관점은 문화예술정책에 중점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커뮤니티 댄스는 단순히 문화예술 향유권 기회의 제공을 뛰어 넘는, 진정한 문화 복지의 개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공동체의 춤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춤은 문화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미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개념의 문화 복지사일 수도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격증으로 무용 예술 강사 선발과 공공기관, 민간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 다원성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교육적 경험이 풍부한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도 문화 복지사의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무용예술 환경에 변화를 초래한 커뮤니티 댄스의 현황을 시대적 요구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커뮤니티 댄스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문화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작된 커뮤니티 댄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춤이며 공동의 정체성을 갖는 지역사회 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의 구성원은 일반 시민들을 말하며 커뮤니티 댄스의 실행주체가 된다. 춤의 체화 과정에서 매개자는 전문 무용가이지만 구성원 자신일 수도 있으며 그들은 능동적으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창작의 자유를 느끼며 춤의 가치를 공유한다.

커뮤니티 댄스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대상별 프로그램, 지역 문화의 재창조 프로그램, 레지던스 공간 활용 프로그램, 시민문화 커뮤니티 활성화프로그램, 아트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고 있다. 이 외에 사회적 갈등요소나 사회적 이슈, 환경문제 등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도 커뮤니티 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8) 최현묵(2011),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정책』(서울: 해조음), p.90.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해 보았는데 첫째, 커뮤니티 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 대학교와 민간차원에서 개발되고 교육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실행 모델들이 만들어져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들과 지속적인 지원제도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무용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용가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커뮤니티 댄스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행의지를 강하게 지녀야 함이 전제가 된다.

셋째, 문화적 삶의 질을 위한 권리와 문화적 감수성의 향상을 목표로 둔 커뮤니티 댄스가 실행됨은 물론,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교육적 경험이 풍부한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도 문화 복지사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화숙, 한혜리, 전해리, 오레지나(2012). 『커뮤니티댄스 *DT-Curriculum*』.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신상미(2013).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인류의 춤 문화 코드 읽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전병대(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Cohen-Cruz, Jan(2005). 『지역 예술운동: Community-Based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권영진(역). 경기: 미메시스. 2008.
- 최현묵(2011).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정책』. 서울: 해조음.
- 김말복(2011). 컨템포러리 댄스의 몸. 『무용예술학연구』. 34(가을): 1-26.
- 김명희(2012). 커뮤니티 댄스의 적용과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31-44.
- _____ (2014). 한국무용교육의 시대적 동향과 과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23-39.
- 김이경(2013).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에 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43(4): 21-43.
- 김채현(2011). 커뮤니티 댄스의 국제적 동향. 『2011 한국춤비평가협회 신춘포럼 논문집』, 1-10.
- 서희영(2011). 국민대학교 무용전공 & Arts Communication 21. 『국민대학교 제7회 예술제 Dance & Community' 포럼 논문집』, 10-22.
- 용호성(2012). 문화민주주의 기반 커뮤니티 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3-17.
- 이상일(2009). 무용교육론 서설.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3-11.
- 차민경(2013). 민간예술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여건 분석. 『무용 예술학연구』, 43(4): 155-174.
- 탁지현(2014). 콜롬비아 <몸의 학교> 교육 구조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53-69.
- 한지연(2015). 커뮤니티 댄스의 가치공유 및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무용 교육학회지』, 26(3): 71-95.
- 한혜리(2014). 생태환경 사회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1-16.
- 한혜리(2015).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 무용의 복합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61-76.
- 황정옥(2013). 거주지 문화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 기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85-99.
- Hutera, Donald(2011). 누구나 다 함께: 미국 커뮤니티 댄스. 『제4회 공연저널리즘 서울포럼 논문집』, 8-11.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html/artspace/honggeun_biz.asp>.
-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프로그램).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2011. 2. 18-20.
- 『꿈! 틀! Dream aMotion』(프로그램). 서울: 호암아트홀. 2011. 10. 9.
- 박향아(2011. 5. 3.).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엄마와 딸' 그 안의 사람들을 만나다. 『아르떼진 인터뷰』.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artezine&logNo=90112738259>>, 2012. 5.

30.)

송준호(2010. 11. 30.). 온앤오프무용단 활동 문래동 '커뮤니티 댄스' 벨트로 떠올라. 『주간한국』.

〈<http://www.kssline.pe.kr/zero/view.php?id=kssline01&no=4876>, 2012. 5. 22〉.

조정진(2011. 2. 1.). 뽀뽀머리 무용가 안은미 '할머니 춤' 무대 올린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1/02/01/20110201002402.html>〉.

논문투고일 2015. 12. 15

심사일 2015. 12. 24

심사완료일 2016. 1. 4

A Case Study on Community Dance and a Plan for its Activation

Kim, Myung-Whae
Professor of Seowon University

The community dance, which is based on the community, started from the concept of the cultural democracy and the dance of the community having a common identit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general citizens. They prepare the space of the mutual understanding actively and share the dance value.

The various programs through the art platform such as the program as the cultural art education, the local culture reinvention program, the residence space conjugation program, the citizen culture vitalization program and etc. are performed in our country and now ask for the program of the humanities access.

The activation plans of community dance are as follows:

1. A curriculum for the professional training for community dance needs to be developed in the university and civic level.
2. It is continued with the cultural art policy, and its support system has to be followed.
3. The community dance expert has to be institutionally guaranteed as the culture welfare worker.

Keywords: Community dance (커뮤니티 댄스), Communication (소통), Culture welfare worker(문화복지사), Common identity(공동의 정체성), Cultural democracy(문화민주주의)